Kobe University Repository : Kernel

PDF issue: 2026-11-28

“교육에서 노동으로의 이행”에 주목한 수업의 실천

호소카와, 타카시
多胡, 太佑

(Citation)
고등교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수학 지원에 관한 법・제도・행재정 한일 비교 연구

(Issue Date)
2022

(Resource Type)
research report

(Version)
Accepted Manuscript

(URL)
https://hdl.handle.net/20.500.14094/0100479025

JSPS 과학연구비 기반연구(C) 19K02864(대표자 : 와타나베 아키오 2019-22 년도)
「고등교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수학 지원에 관한 법・제도・행재정 한일 비교 연구」 기고(11)

“교육에서 노동으로의 이행”에 주목한 수업의 실천
“Transition from Education to Work” and my Classes

키워드 :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 the progressive introduction of free education, 교육학과 경영학의 대화 dialogue between education and business administration, 교육에서 노동으로의 이행 transition from education to work, 경영학 분야의 참조 기준 the reference mode of business administration, 권리로서 직업 교육 career education for human rights, 노동 규범 교육 work rule education

호소카와 타카시 (류코쿠대학)

들어가며

올해(2022 년)는 일본 정부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사회권 규약) 제 13 조 2 (b) 및 (c) 규정에 대한 유보 철회(유엔에 대한 통고)를 한 지 10 년째 되는 해다. 뒤에서 다루듯 필자도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관한 연구나 그 실현을 요구하는 사회 운동에 관여해 왔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정책적인 전환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 기회에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 보면서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과 관련하여 ‘교육에서 노동으로의 이행’에 대해 약간의 고찰을 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교육에서 노동으로의 이행’은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과 직접적으로는 관련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며, ‘교육에서 노동으로의 이행’을 염두에 둔 교육의 실천은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가능성을 열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는 학술적인 논고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실천 보고로서 성격이 강하다. 이 점을 미리 짚어 두고자 한다. 그럼에도 근무하는 직장(경영학부) 환경도 활용한 자잘한 실천이, 어떠한 형태로든 공헌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여기에서는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서 ‘교육에서 노동으로의 이행’으로 관심이 변화한 것에 대해서 서술한 뒤, 담당 과목에서 ‘교육에서 노동으로의 이행’에 주안점을 두고 시도한 내용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약간이나마 문제 제기를 해보고자 한다.

Ⅰ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서 ‘교육에서 노동으로의 이행’으로

1. 일본에서의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의 실태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12 년 일본 정부는 사회권 규약에 대한 ‘유보’ (留保)를 철회했다. 이 점에 관하여 외무성 웹사이트에는 아래와 같이 쓰여 있다[1].

> 일본국 정부는 1966 년 12 월 16 일 뉴욕에서 작성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사회권 규약)의 비준서를 기탁하면서, 동 규약 제 13 조 2 (b) 및 (c)의 규정 적용에 대하여 이 규정의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인 도입에

의하여"에 구속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하다가, 동 유보를 철회하고자 하는 취지를 2012 년 9 월 11 일 유엔 사무총장에 통고했습니다.

이 통고에 따라 일본국은 2012 년 9 월 11 일부터 이 규정이 적용되어, 이 규정에서 말하는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인 도입에 의하여"에 구속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일본 정부는 그 뒤에도 '점진적 무상화'에 착수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아베 신조 정권(당시)이 내건 '고등교육 무상화'가 어느 정도 개선(전진)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제 사회의 인식 기준에서 말하는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과는 이질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점은 2020 년 4 월에 실시한 '대학 등에서의 취학 지원에 관한 법률'(大学等における就学の支援に関する法律) 취지에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2].

>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자 세대 학생에 대해, 사회에서 자립하여 활약할 수 있는 풍부한 인간성을 지닌 창조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 등에서의 수학 지원을 하여, 그 수학에 관련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아이들을 안심하고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정비를 도모해,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급속한 저출산 악화 상황에 대처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저출산 대책'이라는 관점 만이 강조되고 인권 관점이 희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저출산 대책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사회권 규약과 크게 괴리되는 것으로 보인다. '점진적'이라는 것에 유의해서 본다면 어느정도 나아진 부분이 있는 것은 틀림 없지만,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관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나타내고 있지 않다. 또한 소비세율 인상분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3].

오늘날 요청되는 것은 와타나베 아키오(渡部昭男)의 '점진적 무상화의 구상'[4] 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국가(정부) 레벨, 도도부현 레벨, 시정촌 레벨, 대학·학교법인 레벨, 민간 레벨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점진적 무상화'는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 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여러 시책이 확대 추진되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2. 타나카 마사토(田中昌人)에게 영향을 받아

필자는 일본의 고학비 문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논고를 집필해 왔다.

> 「일본의 고학비를 통해 제기되는 문제는 무엇인가—'2006 년 문제'와 타나카 마사토씨의 문제제기—」오카야마 인권 문제 연구소『인권 21 ・ 조사와 연구』No.181, 2006 년, 19~26 쪽.
>
> (「日本の高学費を通じて問われている問題は何か—『2006 年問題』と田中昌人氏の問題提起—」岡山人権問題研究所『人権２１・調査と研究』No.181、2006 年、19～26 頁。)

「교육은 구매하는 것인가 비싼 대학 학비」『교토신문』2006 년 5 월 8 일.
(「教育は買うものか 高い大学の学費」『京都新聞』2006 年 5 月 8 日。)
「'2006 년 문제'와 타나카 마사토씨의 문제 제기—'과도하게 경쟁적인 경쟁 제도 개혁'이라는 과제의 중요성—」국고조성에 관한 전국사립대학 교수회연합『고등교육연보』제 9 호, 2006 년, 76~80 쪽.
(「『2006 年問題』と田中昌人氏の問題提起－『過度に競争的な競争制度の改革』という課題の重要性—」国庫助成に関する全国私立大学教授会連合『高等教育年報』第 9 号、2006 年、76～80 頁。)
「올봄, 대학생이 되는 M 군에게—너에게 전하고 싶은 한 명의 선생과 한 권의 책 등—」정보문제연구회『정보문제연구』제 18 호, 2006 년, 141~147 쪽.
(「この春、大学生となるM君へ—貴方に伝えたい一人の先生と一冊の本のことなど—」情報問題研究会『情報問題研究』第 18 号、2006 年、141～147 頁。)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대하여」고등교육연구회『대학창조』제 20 호, 2008 년, 28~35 쪽.
(「『無償教育の漸進的導入』をめぐって」高等教育研究会『大学創造』第 20 号、2008 年、28～35 頁。)
「학생의 권리 보장을 위한 두 가지 과제」류코쿠대학 인권문제연구위원회『인권 문제 강연 자료집 18』류코쿠대학 종교부, 2009 년, 73~104 쪽.
(「学生の権利保障のための二つの課題」龍谷大学人権問題研究委員会『人権問題講演資料集 18』龍谷大学宗教部、2009 年、73～104 頁。)
「누구나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고등교육으로—인권으로서 교육과 '수익자 부담'론—」『경제』2009 년 4 월호, 47~54 쪽.
(「誰もが安心して学べる高等教育へ—人権としての教育と『受益者負担』論—」『経済』2009 年 4 月号、47～54 頁。)
「올봄 대학을 졸업하는 M 군에 보내는 편지—다시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대하여—」시민과학연구소『시민의 과학』제 2 호, 2010 년, 78~82 쪽.
(「この春大学を卒業するM君への手紙－あらためて『無償教育の漸進的導入』について—」市民科学研究所『市民の科学』第 2 号、2010 年、78～82 頁。)
「고등교육의 무상교육을 어떻게 진전시킬 것인가—고등교육비 예산의 확충과 대학 경영의 전환」『전위』2010 년 10 월호, 38~48 쪽.
(「高等教育における無償教育をどうすすめるか－高等教育費予算の拡充と大学経営の転換」『前衛』2010 年 10 月号、38～48 頁。)
「18 살 봄의 눈물을 잊을 수 없다」『네트워크 교토』2011 년 5 월호, 64~65 쪽.
(「18 歳の春の涙を忘れない」『ねっとわーく京都』2011 年 5 月号、64～65 頁。)

위와 같은 졸고는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학술적인 것 만은 아니다. 이처럼

충분치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필자에게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과 관련한 연구와 실천(사회 운동)은 줄곧 중요한 주제였다. '유보' 철회 10 년째인 해에 지금껏 해온 것을 되돌아 보며 감회가 깊다.

필자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논고를 집필하게 된 것은, 위의 2006 년에 작성한 두 논고의 제목에 언급되어 있는 타나카 마사토와 만남이 계기가 되었다. 타나카는 교토대학을 정년 퇴직한 뒤에 류코쿠대학에 근무했다. 전문 분야는 다르지만 필자가 타나카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다. 그러한 이유로 필자는 다른 논고(「교육학과 경영학의 대화를 향하여—타나카 마사토『장해가 있는 사람들과 만드는 인간 교육』오오츠키쇼텐, 2003 년을 읽다—」정보문제연구회『정보문제연구』제 16 호, 2004 년, 129~134 쪽[5])에서 '교육학과 경영학의 대화'라는 과제를 제시했다.

이 (필자의) '교육학과 경영학의 대화'는 타나카가 2005 년 11 월에 영면한 뒤에도, 타나카에게 영향을 받은 와타나베 아키오 등과 교류하면서 지속했다. 필자의 전공은 경영학으로, 교육학의 관점이나 성과를 통해 배우면서 자신의 (경영학) 교육에 교육학의 식견을 살려내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3. '교육에서 노동으로의 이행'에 대한 관심

타나카 마사토는 대학평가학회의 설립 대회 심포지엄(2004 년 3 월 28 일)에서 '학생의 발달 보장과 대학 평가—교육 행정의 수치 목표와 발달 보장을 위한 평가—'(学生 の 発達保障 と 大学評価—教育行政 の 数値目標 と 発達保障 の た め の 評価—)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6]. 그 발표에서 일본의 대학 평가가 시급히 착수해야 하는 것으로 '무상 교육의 점진적 도입'의 관점과 '청소년기의 트랜지션 보장'의 관점을 언급했다.

전자에 대해서는 타나카가 『경제』(経済)지 2005 년 3 월호부터 5 월호에 연재한 「일본의 고학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日本の高学費をどうするか, 같은 제목의 책이 2005 년 11 월에 신니혼출판사(新日本出版社)에서 간행되었다)에서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역행하는 '유상 교육의 급진적 고등'(有償教育 の 急進的高騰)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거의 같은 시기에 타나카는 코마자와대학에서 개최된 대학평가학회 제 2 회 대회의 '2006 년 문제' 분과회(2005 년 3 월 27 일)에서 좌장을 맡았다. 그곳에는 이 문제에 대해 선구적인 연구를 해온 미와 사다노부(三輪定宣)도 발표자로 참석했다. 미와의 발표는 타나카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여기에서 '2006 년 문제'는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가 2001 년 8 월 31 일부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최종 견해—일본—'에서 "구속되지 않을 권리 보장의 철회를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며 일본 정부에 대해서 2006 년 6 월 30 일까지 기한인 보고에 "이 권고를 실시하기 위해 취한 수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한 것을 요청한다"고 한 것을 밝히고 있다.

한편, 후자(청소년기의 트랜지션 보장)에 관하여 타나카는 설립 대회의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7].

> 제 2 의 문제는 청소년기 10 년 동안의 트랜지션 보장을 대비하여 대학 교육을 규정하는 평가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서 14, 15 세는 생후 제 4 의 새로운 발달의 원동력이 발생하는 더 없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수험 경쟁이라는 제도적 학대에 내던져지면서 여러 참담한 사태가 소년화(少年化)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
> 생후 제 4 의 새로운 발달의 원동력은 '연대의 가치를 깊이 알아가는 힘'입니다. 그것은 또래 또는 다른 세대, 또는 프로인 사람들과 연대하고 협력하여 발달에 걸맞게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을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경험을 거치며 더욱 깊이 배워 창조적인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힘을 키우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적인 발달을 촉진하는 질적으로 다른 복수의 시공간 단위의 교육을 행하여 20 세(원문 그대로 인용) 중반에 사회 활동을 해 나가는 가운데, 인격 발달의 기초로서 역사적, 사회적, 창조적이고 민주적인 제 1 기의 사회적 자기를 형성해 나갑니다. 10 대 중반에서 20 대 중반은 그러한 10 년이라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는 개성을 나타내면서,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성장해 나가는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비교육적, 비인도적인 것을 제도로서 도입하는 것을 시정하려고 하는 것이 청소년기 교육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이어서 타나카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교육연구혁신센터의 동향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학교 만으로 교육 문제의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을 엄선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그 학교의 근간인 교육 구조를 개혁해 나가야 한다[8]"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의 교육권 관점에서 민주주의적인 연대에 바탕한 고도의 인간 교육을 해 나가는 방향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어서 디슨트 워크(decent work)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18 년 전 타나카 보고를 다시금 읽어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음과 동시에, 오늘날에도 상황이 전반적으로 바뀌지 않은 것에 문제의 심각성을 통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과거 10 년 정도를 되돌아 보며 타나카의 '청소년기의 트랜지션 보장' 제안의 영향을 받아, 필자의 관심이 경영학(부에서의) 교육에서 '청소년기의 트랜지션 보장'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라는 실천적인 관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9]. 그것은 필자에게 있어서는 '교육에서 노동으로의 이행'이라는 주제의 탐구였다.

물론 타나카의 문제 제기는 앞서 인용한 것처럼 "학교의 성립 바탕인 교육 구조를 개혁"할 필요를 언급한 것이므로, 본고에서의 고찰은 한정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다음 절에서는 '교육에서 노동으로의 이행'에 주목한 수업의 실천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Ⅱ '교육에서 노동으로의 이행'과 경영학(부에서의) 교육

1. '경영학 분야의 참조 기준'을 살려서 활용하다

일본학술회의는 2010 년 7 월 22 일 「회답 대학 교육의 분야별 질 보증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回答 大学教育の分野別質保証の在り方について)」를 문부과학성에 전달했다. 이 '회답'은 2008년 5월 22일에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장이 일본학술회의에 「대학 교육의 분야별 질 보증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일본학술회의는 "우리나라의 과학자 내외에 대한 대표 기관"(일본학술회의법, 제 2 조)인데, '교육 과정 편성상 참조 기준'은 "…대학의 자기 점검・평가 또는 제 3 자 평가 등의 평가 활동의 충실을 도모하는 관점"(「대학 교육의 분야별 질 보증의 기본 방향에 관한 심의에 대하여(의뢰)」(大学教育の分野別質保証の在り方に関する審議について (依頼)))이라는 구체적인 고등교육 행정의 과제에 유의하여 검토된 것이다. 따라서 학문의 자유에 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10].

앞서 언급한 「회답」을 바탕으로 2012 년 8 월 31 일 일본학술회의 '대학 교육의 분야별 질 보증 추진 위원회'・'경영학 분야의 참조 기준 검토 분과회'가 「대학 교육의 분야별 질 보증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상 참조 기준 경영학 분야」(이하, 경영학 분야의 참조 기준)라는 제목의 보고를 공표했다[11]. 그것은 아래와 같은 구성이다.

1 들어가며
2 경영학의 정의
3 경영학 고유의 특성
4 경영학을 배우는 모든 학생이 습득하도록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소양
5 수학 방법 및 수학 성과의 평가 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관점(考え方)

6 시민성의 함양에 대한 전문 교육과 교양 교육의 관계

7 경영학과 기업가 정신의 육성

여기에서는 본고의 주제에 비추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2 경영학의 정의’에서는 “경영학은 영리・비영리인 모든 ‘계속적 사업체’의 조직 활동의 기획・운영에 관한 과학적 지식 체계다”(3 쪽)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영리・비영리인 모든 ‘계속적 사업체’”에는 “사기업 뿐 아니라 국가・지방자치체, 학교, 병원, NPO, 가정 등이 포함된다”(3 쪽)고 되어 있다.

‘3 경영학 고유의 특성’에서는 다른 사회과학과 다른 고유의 관점으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경영 주체의 관점에서 조직 활동을 볼 것’ ‘조직을 구성하는 각 직능 담당자의 관점에서 조직 활동을 볼 것’ ‘영리・비영리인 모든 계속적 사업체의 활동을 사회 전체의 발전과 관련 지어서 조정하는 관점’이다(6~7 쪽).

또한, 경영학이 “사회적으로 크게 세 가지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하면서 “경영학을 수학함으로써 예를 들어 글로벌 기업과 같은 거대한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조직 전체를 움직이는 지식과 능력을 학습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경영학의 식견을 많은 사람이 학습함으로써 조직에서 활약할 수 있음과 동시에 조직적으로 효율적으로 활동하는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다” “경영학 지식은 영리・비영리인 모든 계속적 사업체를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 하에 최적화하기 위한 식견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3 가지를 밝히고 있다(9 쪽).

이와 같은 내용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본고의 관심인 ‘교육에서 노동으로의 이행’에 비추어 유의미한 내용을 포함한다.

먼저 경영학의 대상이 “영리・비영리인 모든 ‘계속적 사업체’”라고 되어 있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경영학은 영리 기업(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기업 뿐 아니라 국가・지방자치체, 학교, 병원, NPO, 가정 등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다. ‘계속적 사업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경영학 분야의 참조 기준’의 규정은 적극적인 것으로 보고자 한다.

그리고 경영학이 “사회적으로 크게 세 가지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의 하나로 “경영학의 식견은 영리・비영리인 모든 계속적 사업체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 하에 최적화하기 위한 식견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 하에”라는 것은 중요한 지적이다. 개별 기업의 경제적 합리성만을 추구하는 것은 경영학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경영학 분야의 참조 기준”은 새로운 기업상을 제시하였다는 것과 함께,

사회와 관계를 중요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자의 관심에 비추어 유익한 내용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인식에 바탕한 필자의 두 가지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2. '권리로서 직업 교육(キャリア教育)'과 노동 규범 교육(ワークルール教育)[12]

필자가 담당하는 첫 연도차 교육 과목(1 학년 이상의 배당 과목) 중에 '현대 사회와 기업'이 있다. 일본의 '교육에서 노동으로의 이행'이 어려운 상황에 비추어, 본 과목에서는 노동 규범 교육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길잡이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코미카와 코이치로(児美川孝一郎)의 '권리로서 직업 교육'이다. 코미카와『권리로서 직업 교육』(権利としてのキャリア教育, 아카시쇼텐 2007 년)은 문부과학성이 추진하는 '정책으로서 직업 교육'에 대하여 '권리로서 직업 교육'을 실험적으로 제시하면서 그 커리큘럼 구조를 '개인적인 안'으로서 내놓았다.

그것은 노동에 대한 학습; 직업에 대한 학습;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학습(노동 3 권, 노동자 보호법제, 노동조합의 역할……); 자기의 삶의 방향을 설계하여 자신의 것으로 하기 위한 학습; 시민성 교육(시민성을 키워 주권자가 되기 위한 역량 형성;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의 기초 획득(전문 교육, 직업 교육) 등 6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코미카와는 이 책에서 "직업 교육이란 간단하게 말하자면 아이들이 학교 졸업 뒤 사회 생활 및 직업 생활과 관련성(relevance)을 의식한 관점에서 **학교의 교육과정 전체**를 재검토해, 필요한 수정 작업을 해 나가는 일이다" (14 쪽, 강조는 인용자)라고 밝히고 있다. 이 점에서는 특정 과목을 대상으로 한 필자의 시도는 불충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미카와의 저서는 고등학교까지의 직업 교육을 염두에 둔 것으로, 대학에서의 직업 교육으로는 검토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에 유의하고자 한다.

'현대 사회와 기업'에서는 일을 하는 것은 '노동 계약'을 맺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노동 시간과 휴게, 휴일, 임금, 채용과 고용 종료 등의 노동 규범을 소개하고 있다. 구인 정보에 대해 주의해야 할 점이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용되지 않고 일하는 형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 내용은 코미카와의 '권리로서 직업 교육'과 관련지었을 때 '직업에 대한 학습'과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학습'에 상당한다. 무엇보다 노동 규범 교육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학습'과 겹친다.

'현대 사회와 기업'의 15 회 강의 중 특징적인 것은, '과로사 등 방지 계발 수업'과

노동조합에 관한 강연이다. 전자는 후생노동성(한국의 고용노동부에 상당함, 번역자 주)의 '과로사 등 방지 대책 등 노동 조건에 관한 계발 사업'(過労死等防止対策等労働条件に関する啓発事業)의 일환으로, 2014 년 11 월에 시행된 '과로사 등 방지 대책 추진법'(過労死等防止対策推進法)에 근거하여 2016 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다. 필자는 2017 년도부터 강사 파견을 의뢰하여 매년 과로사 가족과 전문가・변호사에게 강연을 부탁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강연은 일본민간방송노동조합연합회(民放労連) 교토방송노동조합의 코스미 히사요시(古住公義) 부위원장에게 의뢰하고 있다. 이 노동조합은 교토방송이 재건되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했다. 또한 비정규 고용의 안정 고용화 및 노동조건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의 많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본래의 존재 의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교토방송의 노동조합은 '제대로 된 노동조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강생들은 계발 수업을 통하여 과로사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배움과 동시에 노동 규범을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 배움으로써 글로만 알고 있던 '노동조합'의 가능성을 실감하고 있다.

15 회의 강의 마지막에는 '인간다운 노동'(人間らしい働き方)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의 학습을 통하여 노동하는 것의 실태를 알게 됨으로써 부정적인 인상 만이 남도록 해서는 안 된다. 실태에 대한 인식에 바탕하여 주권자로서 이 실태를 고쳐 나가기 위한 전망을 전달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3. 다른 세대・다른 계층의 사람들과 연대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다.

경영학부의 강의에서는 이른바 대기업이 주로 언급되기 십상이다. 필자가 담당하는 '주식회사론'이 바로 그러한 과목이다. 그 강의에서는 주식회사를 '자본주의 기업 형태 중 가장 발전된 형태'로 규정한다. 그것은 기업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형태가 가장 적합하다는 취지다.

한편, 실제 주식회사는 여러 문제를 낳고 있으며 그 점 또한 강의에서 다룬다. 이에 더하여 주식회사 외 형태에 대해서(주식회사론을 포함하여) 강의에서 언급하려고 신경 쓰고 있다. 주식회사를 상대화 하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경영학 분야의 참조 기준'이라는 관점을 강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타 담당 과목에서는 협동조합이나 대학에서의 경영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필자는 학외 학습이나 학외 강사의 초청 강연을 중시하고 있다. 이는 '다른 세대・다른 계층 사람들과 연대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을 과제로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필자가 강의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기업 경영자와 교류를 하기 시작(2013 년쯤)한 뒤부터 쓰기 시작하였다. '다른 세대'는 학생보다 윗세대를, '다른 계층'은 학생 외 경영자나 노동자, 타 지역 주민 등을 뜻한다.

강의실에서의 (담당 교원의) 강의 만으로는 기업・경영에 대해 충분히 깊은 인식을 얻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경영학의 실천적인 성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극적으로 학교 밖과 교류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나 강의 과목에서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하기가 한정적이고, 실습(演習)이나 현장 교육을 결합한 과목에서 주로 이뤄진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실습(演習)에서는 적극적으로 기업을 방문하고 있다(인터뷰 및 공장 견학 등). 여름 학기(하기 집중 강의) 때는 숙박을 겸한 실습(実習)에서 (대학과 떨어진) 지역에 있는 기업을 방문하고 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모두 온라인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학생에게 귀중한 배움의 기회가 되고 있다[13]. 실제로는 그러한 기회가 '사회 견학'으로 받아들여지는 데 그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체험은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되기 어렵다.

2013 년에 학생과 함께 한 방문 조사 때, "관광객이 교토역에서 되돌아가는 길에 특별한 마음을 갖고 선물을 구입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 이야기를 교육 현장에 가져오면, 학생들이 경영자나 노동자 등에게 직접 듣는 내용이 당사자의 리얼리티와 결합하여, '현장'이 가지는 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설득력을 가지는 효과가 있다고 느낀다.

마치며

본고에서는 '교육에서 노동으로의 이행'에 주안점을 둔 필자의 실천을 소개했다. 우선 '현대 사회와 기업'의 노동 규범 교육이다. 그리고 실습(演習) 및 현장 교육을 결합한 과목에서의 '다른 세대・다른 계층 사람들과 연대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실천이었다. 경영학부(기업・경영에 대해서 배우는)라는 조건을 활용한 것이다. 그렇지만 어느 것도 충분한 교육 성과를 내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여전히 실험적인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졸고를 집필하면서 타나카의 강연록을 다시 읽어보며 깨달은 것이 있다. 그것은 (Ⅰ의 3 에서 인용한) "**또래**, 또는 다른 세대, 또는 프로인 사람들과 연대하고 협력하여 발달에 걸맞게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배우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경험을 거치며, 더욱 깊이 배워 창조적인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강조 표시는 인용자) 것이다.

타나카의 지적에 비추어 보면 필자의 실천은 그러한 기회를 마련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그것에서 한발짝 나아간 교육의 실천으로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경험'이라는 관점은 완전히 부족한 지점이다.

한편 (이것 또한 Ⅰ의 3 에서 인용한) 타나카의 "교육적인 발달을 촉진하는 질적으로 다른 복수의 시공간 단위의 교육"이라는 문구를 접하고, 실습(演習)이나 현장 교육을 결합한 과목에서의 실천은 교육(학)적인 관점에서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졸고를 집필하면서 학생을 학습의 주체로 파악하는, 당연한 것을 재확인했다. 또한 필자는 앞으로도 '교육학과 경영학의 대화'라는 과제에 몰두해 나가고자 하는 생각이 강하다.

---

[1] 외무성「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사회권 규약) 제 13 조 2 (b) 및 (c)의 규정에 관한 유보의 철회(유엔에 대한 통고)에 대해서」https://www.mofa.go.jp/mofaj/gaiko/kiyaku/tuukoku_120911.html (2022 년 4 월 29 일 열람)
(外務省「経済的、社会的及び文化的権利に関する国際規約（社会権規約）第 13 条 2（b）及び（c）の規定に係る留保の撤回（国連への通告）について」)

[2] 문부과학성 대학 등에서의 수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요 https://www.mext.go.jp/a_menu/koutou/hutankeigen/detail/__icsFiles/afieldfile/2019/05/17/1417025_01_1.pdf (2022 년 4 월 29 일 열람).
(文部科学省「大学等における修学の支援に関する法律の概要」)

[3] 이 점과 관련하여 일본변호사회 연합회「젊은이가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요구하는 결의」(「若者が未来に希望を抱くことができる社会の実現を求める決議」, 2018 년 10 월 5 일)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보편주의의 사회보장・인간다운 노동과 공정한 분배'와 '연대를 통한 재원 확보와 세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후자에 대해서는 소비세의 역진성을 지적하며 "세수 구성 및 예산 배분에서의 역진성의 폐해를 경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결의' 및 그 '제안 이유'에서는 연합회의 아래와 같은 사이트를 참조 https://www.nichibenren.or.jp/library/ja/civil_liberties/data/2018_1005_03.pdf (2022 년 5 월 3 일 열람).

[4] 와타나베 아키오「권리로서 교육 무상화」『경제』2019 년 12 월호, 78 쪽(渡部昭男「権利としての教育無償化」『経済』)에 게재. 이 자료에서는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 대학・학교법인, 민간이라는 6 개 레벨과, 학비, 장학금・학자금 대출 등, 수학 지원, 취학 지원・생활 보장이라는 4 개 구분이 제시되어 있다. 와타나베는 '구상' 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체에서의 교육비 지원 정보에 대한 홍보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5] (원어 표기)「教育学と経営学の対話に向けて－田中昌人『障害のある人びとと創る人間教育』大月書店、2003 年を読む－」情報問題研究会『情報問題研究』第 16 号、2004

年、129～134 頁。
[6] 시리즈「대학평가를 생각하다」편집위원회편『21 세기 교육・연구와 대학 평가―또 하나의 대학 평가 선언―』대학평가학회(코요쇼보, 발매), 2005 년, 30~40 쪽.
(シリーズ「大学評価を考える」編集委員会編『21 世紀の教育・研究と大学評価―もう一つの大学評価宣言―』大学評価学会（晃洋書房、発売)、2005 年、30～40 頁。）
[7] 위와 같음, 35~36 쪽.
[8] 위와 같음, 36 쪽.
[9] 2010 년대 들어 필자가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면서도 그것에 관한 논고를 집필할 기회가 적어진 것은, 관심 영역이 바뀐 것과 함께 와타나베 아키오나 이시이 타쿠지(石井拓児), 타나카 히데요시(田中秀佳) 등이 우수한 논고를 간행하게 된 영향도 있다.
[10] 일본학술회의「대학 교육의 분야별 질 보증을 위한 교육 과정 편성상의 참조 기준에 대하여(해설)」(日本学術会議「大学教育の分野別質保証のための教育課程編成上の参照基準について（解説）」)
https://www.scj.go.jp/ja/member/iinkai/daigakuhosyo/pdf/kaisetsu.pdf (2022 년 5 월 3 일 열람)에서는, "자신의 식견과 책임 하에 참조 기준을 작성・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참조 기준은 정부의 법제도 및 자금 투입과 연동되지 않고, 전국의 대학을 포함하여 대학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관계자(그것에는 예를 들어 앞으로 대학에서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나 또는 대학의 졸업생을 고용하려고 하는 기업 등도 포함됩니다)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참고 자료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11] '대학 교육의 분야별 질 보증 추진위원회'는 일본학술회의에 설치된 과제별 위원회의 하나로, 그 위원회에 분야별 참조 기준 검토 분과회가 설치되어 있다.
[12] 상세하게는 졸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동 규범 교육―첫 연차 학생을 중심으로 한 '현대 사회와 기업'에서의 실천―」『류코쿠대학 경영학 논집』제 61 권 제 2 호(「大学生を対象としたワークルール教育―初年次生を中心とした『現代社会と企業』での試み―」『龍谷大学経営学論集』第 61 巻第 2 号（近刊）)을 참조.
[13] 졸고「2008 년도부터 2021 년도까지의 '지역과 기업'의 실천―'현장 실습'을 병행하는 과목의 성과와 과제―」『류코쿠대학 경영학 논집』제 61 권 제 4 호(2022 년 간행 예정)(「2008 年度から 2021 年度までの『地域と企業』の実践－『現場実習』をともなう科目の成果と課題－」『龍谷大学経営学論集』第 61 巻第 4 号)에서, 현장 실습을 병행하는 과목에서의 실천을 되짚어 보고 있다. 본 과목(지역과 기업)이나 실습(演習)에서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을 통하여 현장으로부터의 배움을 계속하고 있다.

저자 소개

호소카와 타카시(細川 孝)
1962 년 도쿠시마현 출생　현직 : 류코쿠대학 경영학부 교수　학위 : 석사(경영학)
약력 : 1984 년 3 월에 에히메대학 법문학부를 졸업한 뒤, 민간 기업에 근무. 1992 년 4 월에 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 경영학 연구과 박사과정 전기 과정에 입학, 1997 년 3 월에 동 후기 과정을 중도 퇴학. 같은 해 4 월부터 교토경제단기대학에 근무한 뒤, 2000 년 4 월부터 류코쿠대학 경영학부에 근무하고 있다.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류코쿠대학 교토산업학 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다. 현재, 일본경영학회 이사(경영학 교육 검토위원회 위원장), 일본비교경영학회 이사・사무국장, 대학평가학회 대표 이사, 과로사방지학회 상임 간사.
연구 이력 : 전문분야는 경영학(현대 기업론), 대학평가론. 편저로는 『일본의 대학 평가―역사・실태・평가 문화―』코요쇼보, 2012 년(『日本の大学評価－歴史・現状・評価文化－』晃洋書房);『'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과 대학계 개혁』코요쇼보,

2014 년(『「無償教育の漸進的導入」と大学界改革』晃洋書房)이 있다. 공편저로는 『전환기의 주식회사—확대하는 영향력과 개혁 과제』('현대를 읽는 경영학 시리즈 제 4 권') 미네르바쇼보, 2009 년(『「無償教育の漸進的導入」と大学界改革』晃洋書房); 『현대의 기업과 사회—일하기 전에 알아둘 것』중앙경제사, 2021 년(『現代の企業と社会－働く前に知っておきたいこと』中央経済社)이 있다. 최근의 논문으로는 「코로나 감염 확대와 현대 의약품 기업—백신 개발을 둘러싼 상황을 중심으로」『경제』2021 년 8 월호, 117~127 쪽, 신니혼출판사(「コロナ感染拡大と現代医薬品企業－ワクチン開発をめぐる状況を中心に」『経済』);「백신 개발에서 보는 일본의 의약품 산업」『경제』2021 년 12 월호, 37~47 쪽, 신니혼출판사; 「일본의 의약품 산업 정책과 경제 안전 보장—'의약품 산업 비전 2021'의 검토—」2022 년 7 월호(게재 예정), 신니혼출판사(「日本の医薬品産業政策と経済安全保障－『医薬品産業ビジョン 2021』の検討－」)가 있다.